

의정부시 人口 40만 돌파 제33회 어버이날 기념행사

40만번째 시민 선정 축하 이벤트

의정부시(시장 김문원) 인구가 40만을 넘어섰다. 시에 따르면 지난 4월 4일을 기해 시 전체 주민등록 인구는 40만 45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약 1%가 늘어났다. 호원·신곡·장암동 일대의 신규 아파트 단지 입주주민이 시 전체 인구 증가의 견인차 역할을 한 셈이다.

시는 이를 기념하기 위해 40만번째 시민을 선정하고 지난 5월 2일에는 시장이 직접 축하 꽃다발과 기념품을 전달하는 특별 이벤트를 개최했다.

40만번째 시민은 최초 인구 40만 명 달성 시점인 4월 4일 11시 48분 8초에 전입 신고한 호원1동 임규섭 씨(男·43세·회사원)로 지난 40여년간 서울에서 거주해오다 이번

에 호원동 신일유토피아빌더 아파트로 입주하면서 의정부 시민이 된다고 축하했다. 40만원 상당의 식기 세척기까지 차지하는 행운의 주인공이 됐다.

의정부시는 지난 1963년 시승격 당시 인구 6만2천명으로 출발하여 2005년에 이르러 40만을 넘어섰으며, 최근 미군공여지 반환에 따른 경기북부 행정타운 유치 및 공원 조성, 주택단지건설계획 등 지속적인 발전 면모를 보이고 있다.

시는 경량철사업이 완공되는 2010년 말이면 명실상부한 경기북부의 교통·문화·교육의 중심도시로 시민들이 살기좋은 의정부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이라 밝혔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의정부시 40만번째 시민으로 선정된 임규섭씨가 김문원 의정부시장으로부터 꽃다발과 40만원 상당의 식기세척기를 받고 기뻐하고 있다.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기념식 및 축하공연

의정부시는 제33회 어버이날을 맞아 자칫 퇴색되어 가는 효에 대한 개념과 가치관을 새롭게 조명하기 위해 지난 6일 김문원 의정부시장을 비롯한 내빈 및 노인들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기념식을 개최했다.

기념식 행사는 제1부 기념식과 제2부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제1부 기념식에서는 남다른 정성과 노력으로 효를 실천하고 있는 효행자 및 경로효친 사상 앙양과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 노인복지 기자 등을 발굴하여 포상 하였고, 제2부 축하공연에서는 공립어린이집 원아들이 출연하여 재롱잔치를 벌이자 노인들의 얼굴에 웃음이 떠나지 않았다.

김문원 시장은 기념식 축사를 통하여 최근 사회가 급속히 발전되어 물질이 풍요로워 지면서 우리의 전통미풍양속인 경로효친 사



의정부시는 지난 6일 제33회 어버이날을 맞아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노인 1천여 명을 초청한 가운데 기념식을 개최했다.

상이 퇴색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내며, 금번 어버이기념행사를 계기로 효의 의미를 되새겨보고, 우리가 대대로 지켜온 경로효친의

윤리규범이 가정과 사회의 미풍양속 속으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국제사기꾼 되느니 범법자 되겠다”

손학규 지사 8일, 정부의 수도권 정책관련 기자회견



지난 8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손학규 경기도지사.

손학규 경기도 지사가 지난 7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3차 수도권발

전대책협의회에서 중도에 퇴장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손 지사는 이와 관련해 지난 8일 경기도청 브리핑 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수도권 정책, 이대로는 안됩니다 라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마친 후, 손 지사는 성명서에서 “행정중심복합도시 이전과 관련한 수도권발 전대책을 협의하기 위한 국가적인 과제를 놓고 중도에 퇴장할 수밖에 없었던 저의 마음은 더 이상 무거울 수 없고 국민들에게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면서 “그러나 첨단 대기업 진출을 허용 문제에서조차 정치적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의 막대한 대응 앞에서 더 이상 정부가 수도권 발전대책을 논의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첨단 대기업의 증설과 관련, 기존 수도권 대책에서 한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았다”면서 “우리를 믿고 경기도에 투자하기로 약속한 5개 외국 글로벌 기업에 대해 무어라고 답을 해야 될 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정치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에 동의하고 협조한 것도 바로 국가균형발전과 수도권 경쟁력 강화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추구하

기 위해서였다”면서 “그러나 국가 발전보다는 정치적 이해관계만을 바탕으로 한 노무현 정부의 균형발전정책과 수도권정책은 이에 그 본모습을 드러내고 있다”고 강조했다.

손 지사는 글로벌 기업인 3M의 국철단기기술을 수반한 6천만 달러의 기공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한 것과 관련, “솔직히 제가 범법자가 되는 한이 있더라도 3M에서 기공식을 하겠다고 하면 참석해서 축하해줄 생각이야”며 “법적인 미비 때문에 기공식을 못하게 되면 제가 국제적 사기꾼이 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적 사기꾼이 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7일 오전 10시 정부중앙청사 9층 회의실에서는 이 해찬 국무총리와 한덕수 경제부총리, 관련부처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3회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가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수도권권의 첨단기업 신·증설문제, 수도권 규제개혁문제 등이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정부의 수도권 규제정책에 대한 진전이 없자 손지사는 회의시작 1시간 만인 11시 30분에 회의장을 퇴장했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호원1동 경로잔치

의정부시 호원1동에서 원도봉산감자탕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주재철(남·45세)씨는 지난 3일 지역 어르신 100여명을 초청,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등 어르신들을 위한 경로잔치를 열어 지역주민들을 훈훈하게 했다.

이번 잔치를 준비한 주씨는 “조금 더 일찍 마을 어르신들을 모시고 싶었으나 직접 실천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밝히며, “앞으로는 매년 정기적으로 계속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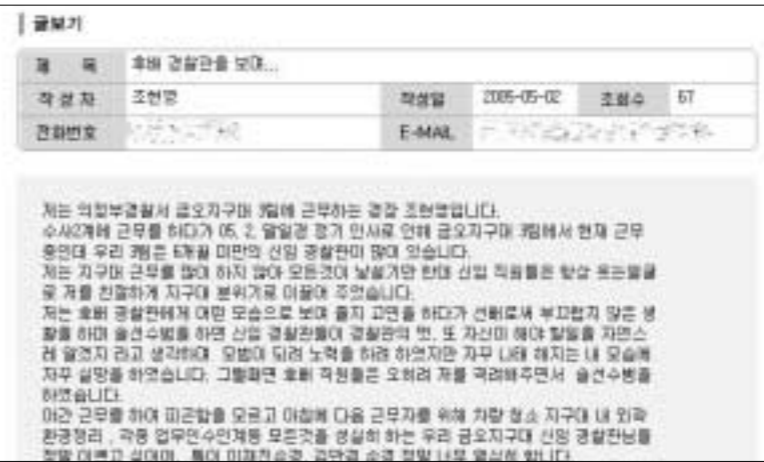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의정부경찰서 인사

- ▶경위 김광수 가능지구대 1사무소장
- ▶경사 조지경 생활안전과 송산초소
- ▶경사 강일선 경비교통과 호원검문소
- ▶경사 유석형 생활안전과 지령실
- ▶순경 이영하 생활안전과 생활안전계
- ▶경장 김영수 :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 ▶순경 강태선 생활안전과 여성청소년계
- ▶경장 피준희 형사과 강력범죄수사팀
- ▶순경 서영주 수사과 유치관리팀
- ▶경장 손해경 경비교통과 사고조사계
- ▶순경 김종철 경비교통과 사고조사계
- ▶경사 최영학 가능지구대 순찰팀
- ▶경장 강일웅 통과 사고조사계
- ▶경사 최영학 가능지구대 순찰팀
- ▶경사 송동진 () ▶경장 강성규 () ▶경장 임용민 () ▶순경 황상일 ()

후배 경찰관 자랑글 화제

금오지구대 조현영 경장 후배신임경찰관에 감사



의정부경찰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조현영 경장의 후배 칭찬 글.

의정부경찰서(서장 신동훈) 인터넷 홈페이지(ub.gppolice.go.kr)에 지난 2일 후배경찰관을 칭찬하는 선배경찰관의 글이 올라와 주민들과 경찰 동료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 수사과 지능1팀에 장기간 근무를 하다가 올해 초부터 금오지구대 순찰 2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현영 경장은 자신의 익숙하지 않은 지구대 근무에 많은 도움을 주고 모든 일에 솔선수범하며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후배 신임 경찰관들에 대하여 마음속 깊이 우리나라는 애정과 감사의 뜻을 전했으며, 특히 같은 팀에 근무하는 이재진 순경, 김만겸 순경에 대한 칭

찬을 아끼지 않았다.

또한 지난 1일 새벽 2시 30경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여중 뒤 주택가에서 절도우범지역을 집중 순찰을 하다가 주택가 주변을 배회하는 청소년들을 유심히 관찰, 이들의 오로바이 절도 현장을 목격하고 도망하는 절도 피의자들을 약 1킬로미터 가량 추격하여 절도범 4명을 검거한 뒤, “조경장님 도둑놈들을 제 손으로 잡은 것은 처음인데요 흥분됩니다”라고 말하며 환하게 웃던 김만겸 순경의 얘기를 실어 눈길을 끌었으며, 끝으로 경찰서장에게 후배들에 대한 격려를 부탁하는 말도 잊지 않았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가구디자인 공모전 개최로 가구산업 붐 조성

7월 14,15일 예선접수

경기도에서는 경기북부 주력산업이며 전통산업인 가구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우수디자인 발굴, 가구산업의 '붐' 조성을 위하여 2003년부터 가구디자인 공모전을 개최하였고 올해 3회를 맞이했다.

이번에 실시되는 제3회 경기 가구 우수디자인 공모전은 가구디자인 자유분야, 기업지정분야로 2개 공모분야를 선정하여 전문성을 강화하였고 가구디자인 자유분야는 가구디자인에 대한 제한없이 누구나 응모를 할 수 있으며 기업지정 분야는 (주)에이치스대에서 참대분야로 디자인을 지정하여 공모를 받기로 하였다.

예선접수는 7월 14일부터 15일까지이며, 예선 및 본선을 거쳐 수상작 시제품은 금년 9월에 KINTEX에서 개최되는 2005 한국국제가구박람회(경기도관)에 전시될 예정이다.

수상작은 제품화로 이루어져 기업체의 매출 및 경쟁력 향상 기여하고 있으며 우수한 디자인은 Database로 관리되어 필요로 하는 기업에 제공되고 있다.

경기도는 가구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국내외박람회 개최 지원, 가구디자인 개발, 가구디자인에 대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중이다.

지혜배 기자 94spice@hanmail.net

고객안전 · 고객만족 · 고객사랑을 지향하는 '금마 고속 관광'

고객님들의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로 성장해온 '금마고속관광'은 언제나 친절과 안전운행을 약속합니다.



최신형 전세버스 완비

25인승, 35인승, 45인승

- 효도관광
- 수학여행
- 신혼여행
- 문화재답사

